

근대식 학제 도입 이전(1880~1894)의 학교와 교과서 연구

허재영(단국대)

〈 목 차 〉

- | | |
|-------------------------|----------------------|
| 1. 서론 | 3. 근대 교육 형성기의 지식 유통과 |
| 2. 근대 교육 형성기의 학교와 교육 내용 | 교과서 문제 |
| | 4. 결론 |

1. 서론

이 연구는 개항 이후부터 1895년 '소학교령'이 발표(發布)되기까지의 근대 학정 관련 자료 및 학교, 교과서 등을 대상으로, 근대 교육의 형성 과정을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첫째는 개항 이후 근대식 학제 도입 이전(이하 '근대 교육 형성기'라고 명명함)까지 학정·학제 관련 사항을 정리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 문제는 이만규(1947), 박득준(1989), 이광린(1969), 김경미(2009) 등에서 연구된 바 있으나, 이 시기 근대 학정과 관련된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개항 직후 이루어진 조사시찰단(이른바 신사유람단)의 보고서에 대한 허동현(2003)의 자료집과 이 시기 교육사 관련 자료를 엮은 국사편찬위원회

(2011)의 자료집 등이 있으나, 개항부터 '소학교령'까지의 20년에 이르는 시기의 근대 교육 형성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특히 '기기군물(機器軍物)'과 '어학 교육(語學教育)'은 근대 교육 형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근대 교육 형성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를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이 시기(1880~1895)의 교육 관련 자료 및 근대 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을 목표로 한다.

둘째는 근대 교육 형성 과정에서 등장하는 교과서와 관련된 자료의 정리이다. 이에 대해서는 박봉배(1987), 이종국(1991) 등의 선행 연구가 일부 있지만, 기초 자료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박봉배(1987)에서는 국어 교육의 전사(全史)를 기술하면서, '개화기의 교육'을 설정하고 이 시기를 다시 '민간 주도기(1800년대 전후의 천주교·개신교 전래~갑오개혁까지)', '정부 주도기 전기(1895~1905)', '정부 주도기 후기(1905~1910)'로 나누었다. 그러나 박봉배(1987)의 연구는 주로 정부 주도기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루어진 근대 교육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기술된 바가 거의 없다. 이에 비해 이종국(1991)에서는 근대 교과용 도서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논하면서, 1883년부터 1910년 사이를 '한국의 근대 교과용 도서 성립 과정'으로 설정하고, 1882년의 지식영 상소문과 1883년 원산학사의 교과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종국(1991)의 논의에서는 원산학사의 교육과정과 『농정신편』에 대한 분석 등과 같은 성과가 있었으나 이 시기 근대 학교인 '동문학'이나 '육영공원', '배재학당' 등과 관련된 기술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처럼 이 분야에 대한 선행 연구가 존재함에도 근대 교육 형성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진한 것은 사료(史料)의 부족과 교과서 실물의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이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1880~1895년까지의 교육 문제, 학제, 교과서와 관련된 문헌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기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문헌

- ㄱ. 허동현(2003) 편집의 『조사시찰단 관계 자료집(朝士視察團關係資料集) 5』 (조준영(趙準永)의 『문부성 소할 목록(文部省所轄目錄)』 수록), 국학자료원.
- ㄴ. 허동현(2003) 편집의 『조사시찰단 관계 자료집(朝士視察團關係資料集) 13』(어윤중(魚允中)의 『수문록(隨聞錄)』), 국학자료원.
- ㄷ. 국사편찬위원회(1971)에서 편집한 『한국사료총서 제6』(어윤중(魚允中)의 『종정연표(從政年表)』와 김윤식(金允植)의 『음칭사(陰晴史)』), 탐구당.
- ㄹ. 관훈(寬勳) 클럽 신영연구기금(信永研究基金) 편집(1983)의 『한성순보(漢城旬報) : 1883-1884』, 『한성주보(漢城週報) : 1886-1888』, 『한성순보·한성주보 번역판(漢城旬報·漢城週報 翻譯版)』, 코리아헤럴드.
- ㅁ. 국사편찬위원회 편집(2011), 『한국근대사 기초 자료집 2, 개화기의 교육』, 탐구당문화원.

이 연구에서는 이상의 문헌에서 교육 관련 자료를 찾고, 해당 자료의 성격과 관련 국가별로 나누고, 각 자료에서 중점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술하고자 한다.

2. 근대 교육 형성기의 학교와 교육 내용

2.1. 근대 교육 형성기의 주요 교육 과제

앞의 문헌을 대상으로 근대 교육 형성기의 주요 자료는 대략 50종이다. 이들 자료의 출처와 성격은 다음과 같다.

(2) 기초 자료

출처	성격			계
	기사	논설	보고	
고종실록(高宗實錄)		1	1	2
문부성 소할목록(文部省：所轄目錄)			1	1
수문록(隨聞錄)			1	1
한성순보(漢城旬報)	13	3		16

출처	성격			계
	기사	논설	보고	
육영공원등록(育英公院叢錄)			1	1
음청사(陰晴史)	2		1	3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		1		1
조선시대 사찬 읍지38-함경도 덕원부지 (咸鏡道 德源府誌)			1	1
한성주보(漢城週報)	15	7		22
춘성지(春城誌)			1	1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장정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章程)			1	1
계	30	12	8	50

조사한 자료에서 조준영의 『문부성 소할 목록』은 시찰 보고서이며, 『수문록』은 견문 기록으로 여러 자료가 섞여 있다. 또한 『육영공원 등록』이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장정』은 정부 기관의 등록 문서에 해당하여, 『한성순보』나 『한성주보』 등의 자료와는 성격상 동일하지 않다. 그럼에도 이들 자료를 종합하여 정리한 까닭은 근대 교육 형성기의 교육 관련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이들 자료를 종합할 때, 이 시기의 교육 개혁의 방향과 이론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시기 교육 개혁의 주요 과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들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 50종의 교육 관련 자료를 주제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근대 교육 형성기의 교육 관련 주제

주제	편수	계	
학제	일반	23	39
	전문학교 이상	4	
	대학	2	
	육영공원	2	
	중학	2	

주제		편수	계
학제	소학	3	39
	외국어	3	
	학과	12	12
	기타	8	8
	교과서	2	2
	학정	2	2
	서적	1	1

(한 자료에 둘 이상의 주제가 들어 있을 경우 중복 분류함¹⁾)

중복 분류 결과 이 시기 교육 자료 가운데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것은 학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 시기 학제는 소학교, 중학교, 전문학교(직공학교, 기예학교, 무비학교, 농업학교 등), 대학교 등의 학교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근대식 학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학제 운영의 필요성을 자각한 결과이다. 이러한 학제 속에는 학과에 관한 언급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가운데 12편 정도는 각급 학교의 학제와 학과를 소개한 자료들이다. 기타의 자료는 교육 관련 자료이기는 하지만 가십성 기사이거나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것들이며, 교과서 관련 자료는 『문부성 소할 목록』과 원산학사 관련 자료로, 선행 연구에서도 어느 정도 다루어진 것들이다. 학정 관련 자료 2편은 『한성주보』에 수록된 ‘논학정’과 지식영 상소문을 지칭한 것이며, 교과서는 아니지만 『음청사』에 등장하는 ‘회례전 서목(回禮箋 書目)’은 당시의 서적 유통이 교육 내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판단 아래 별도의 항목으로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시기 학제와 학교, 교과서 관련 문제를 좀 더 살펴본다.

1) 예를 들어 조준영의 『문부성 소할 목록』은 학제, 학과, 교과서와 관련된 사항이 모두 들어 있으므로 각 항목에서 모두 다루는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2.2. 근대 교육 형성기의 학제 · 학과론

근대 교육 형성기의 교육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용후생을 위한 학교 설립과 지식 보급을 주제로 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고종실록』 19년(1882) 8월 19일자에 실려 있는 지석영(池錫永)의 ‘시무책(時務策)’에서 찾아볼 수 있다.

(4) 時務策²⁾

幼學池錫永疏略。目下大政，莫先於安民心。何則，我國僻在海左，從來不會外交，故見聞不廣，昧於時局。交隣聯約，俱不知爲何物。見稍用意於外務者，則動輒目之以染邪，誹謗之唾辱之。凡民之胥動而疑忌者，不識時勢故也。民若不安，國安得治乎？第伏念各國人士所著，『萬國公法』，『朝鮮策略』，『普法戰記』，『博物新編』，『格物入門』，『格致彙編』等書及我國校理臣金玉均所輯『箕和近事』，前承旨朴泳教所撰『地球圖經』，進士臣安宗洙所譯『農政新編』，前縣令臣金景濬所錄『公報抄略』等書，皆足以開發拘曲，瞭解時務者也。伏願設置一院，搜集上項諸書。又購近日各國水車，農器，織組機，火輪機，兵器等貯之。仍命行關各道每邑，選文學聞望之爲一邑翹楚者，儒吏各一人，送赴該院，使之觀其書籍，深知世務，有能做樣造器，盡其奧妙者，銓其才能而收用，又造器者，許其專賣，刊書者，禁其翻刻，則凡入院者，無不欲先解器械之理，深究時局之宜，而莫不翫然而悟矣。此人一悟，則凡此人之子若孫及隣黨之素所敬服者，率皆從風而化之矣。茲豈非化民成俗之捷徑，利用厚生之良法乎。民既解惑而安奠，則凡自強禦侮之策，具載於中國人所著『易言』一部書。臣不感贅進焉。

이 시무책은 중국인이 지은 『역언(易言)』의 일부를 바탕으로 ‘원(院)의 설치’, ‘서적 구입’, ‘시국 탐구’를 방책으로 제시한 글이다. 여기서 ‘원(院)’은 일종의 학교이며, 구입을 촉구한 각종 서적은 이 시기 시급히 공부해야 할 지식들이다. 이들 지식은 ‘각국 인사가 지은 책’으로 표현되었듯이 서구의 신지식에 해당하며, 중국인이 지은 책에 근거하여 시무책을 제시한 점을 고려할 때, 근대 교육 형성 과정에서 “서구 지식(학제) → 중국(또는 일본 경유) → 우리나라에의 소개”로 이어지는 지식의 흐름을 추론해 낼 수 있다.

근대 교육 형성기의 서구 지식의 유통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의 역할은 우리의 학제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2) 국사편찬위원회(2011)에 수록된 자료를 옮김.

대체로 중국을 경유한 지식은 ‘기기군물(機器軍物)’이나 ‘이용후생(利用厚生)’과 관련을 맺는 것이 많은 데 비해, 일본을 경유한 지식은 서구의 학제를 모방한 일본의 학제에 관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³⁾

이러한 차원에서 근대 교육 형성기의 학제 관련 지식은 ‘서구의 제도’에 근원을 둔 ‘일본식 학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조준영의 『문부성 소할 목록(文部省所轄目錄)』이다. 이 자료는 허동현(2003)에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문부성 소할 목록의 내용

- ㄱ. 文部省：沿革，職制，事務章程，經費，學校誌畧，教育令
- ㄴ. 大學法理文三學部：記略，編制 及 教旨，學科課程，法學部，理學部，文學部，教科細目，規則
- ㄷ. 大學豫備門：沿革，教旨 及 課程，教科細目
- ㄹ. 大學醫學部：沿革，通則，豫科課程，本科課程，製藥學 教場 規則，製藥學 本科 課程，醫學 通學生 學科 課程，製藥學 通學生 學科 課程，附 病院規則
- ㄹ. 師範學校：沿革，規則，教科細目，入學 規則，附屬 小學 規則/ 小學 規則
- ㅂ. 女子師範學校：規則，本科 課程，入學 規則，附屬 幼稚園 規則(保育科目，保育課程)
- ㅅ. 外國語學校：沿革，校則，別 附 課程(漢語 朝鮮語學 課程，佛獨露語學 課程)
- ㅇ. 體操 專習所：規則，教則
- ㅈ. 圖書館：規則
- ㅊ. 教育 博物部：規則
- ㅋ. 學士會院：規則

3) 참고로 조사 자료 50편 가운데 중국과 관련을 맺고 있는 자료가 8편, 일본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4편이다. 중국과 관련된 것으로는 『음청사』에 나타나는 ‘수사국(水師局)’, ‘수뢰국(水雷局)’, ‘수사학당(水師學堂)’ 등의 중국 각 기관 및 학교, 『한성순보』에 나타나는 중국 각 지역의 학교 설립 운동, 『한성주보』에 실린 왕작당 선생의 ‘광학교(廣學校)’(논설), ‘동문관 대고제(同文館大考題)’, ‘텐진무비학당 대고제(天津武備學堂大考題)’(대고제는 시험 문제를 의미함) 등이 있으며, 일본과 관련된 것으로는 조준영의 『문부성 소할 목록』, 어윤중의 『수문록』에 수록된 ‘동경상법강습소약칙(東京商法講習所略則)’, 『한성순보』의 ‘일본재필(日本載筆)’(일본의 대학 18개 학과), ‘직공학교 규칙(職工學校規則)’ 등이 있다.

조준영의 『문부성 소할 목록』은 개항 이후 일본의 교육 실태에 대한 최초의 보고서⁴⁾로, 일본 문부성의 연혁과 학제를 체계적으로 소개하였다. 당시 이 보고서가 우리의 교육 제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보고서에 등장하는 일본의 '개성학교(開成學校)'와 관련된 내용은 『한성순보』(이하 순보) 1884년 6월 14일[제24호] '각국근사(各國近事)'의 '일본재필(日本載筆)'에도 등장한다. 다만 순보의 기사가 보고서를 참고했다는 단서는 찾을 수 없으므로, 이 보고서가 당시의 교육 개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보고서에 등장하는 일본 문부성의 연혁, 일본의 대학·사범학교·소학교·여자사범학교·유치원·외국어학교 등의 제도는 당시의 위정자나 지식인들에게 근대식 학제가 존재함으로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학교 제도에 대한 소개는 조사의 한 사람이었던 어윤중의 『수문록(隨聞錄)』에도 등장한다. 이 문헌은 어윤중이 일본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

4) 조사시찰단(속칭 신사유람단)은 1881년 4월 초부터 윤 7월까지 4개월여에 걸쳐 일본의 문물제도를 시찰한 사행단(使行團)을 말한다. 이 시찰단은 총 64명으로, 12명의 조사(朝士), 27명의 隨員, 10명의 通事, 13명의 下人, 2명의 일본인 통역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조사(朝使)로는 강문형(姜文馨: 1831-?), 김용원(金鏞元: 1842-?), 민종묵(閔種默: 1835-1916), 박정양(朴定陽: 1841-1904), 심상학(沈相學: 1845-?), 어윤중(魚允中: 1848-1896), 엄세영(嚴世永: 1831-1899), 조병직(趙秉稷: 1833-?), 조준영(趙準永: 1883-1886), 이원회(李元會: 1827-?), 이현영(李金憲永: 1835-1907), 홍영식(洪英植: 1855-1884)이 참여했으며, 수원(隨員)으로는 관비 유학생 신분의 유길준(兪吉濬), 윤치호(尹致昊), 유정수(柳正秀)가 참여했다. 기타 수행원은 조사들과의 사적 관계에 따라 발탁된 양반 출신의 미출사자 또는 도일 경력이나 실무 능력을 인정받아 선발된 하위직 관리나 중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때 조사들의 임무는 일본의 실정 전반 즉 “朝廷議論·局勢形便·風俗人物·交聘通商”의 상담보고에 있었으며, 개별적으로 별도의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내무부(內務省)는 박정양, 문부성(文部省)은 조준영, 사법성(司法省)은 엄세영, 공부성(工部省)은 강문형, 외무성(外務省)은 심상학, 육군성(陸軍省)은 홍영식, 대장성(大藏省)은 어윤중, 세관(稅關)은 이현영·조병직·민종묵, 육군 조련은 이원회, 기선 운항은 김용원이 담당하였다. 이 시찰단의 보고서는 허동현(2003)에서 영인한 바 있다.

한 것으로, 일본의 개화 과정에 대한 그의 견해가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일본변국선중군정시(日本變局先從軍政始)'는 말 그대로 '일본의 변국이 먼저 군정(軍政)을 따라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당시 일본의 기예 발달이 '군물 제도(軍物制度)'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음을 주시한 것이다. 다음을 살펴보자.

(5) 日本變局先從軍政始

欲學外國技藝, 買漁機軍物, 不可不審, 外國教師之願, 雇者每多大欺人, 無所百學
漁機軍物以有制 及易傷無用者出言(?) 不如深悉外國情形 而後舉公往復該國政府者
公使而求之也. 日本已受其弊云. 日本現行政法·海軍用英制, 陸軍用獨逸·法蘭, 醫
學·銃砲專用獨逸, 軍裝·服裝參用魯國, 法律用佛, 鑛學用獨逸. 國有三黨, 曰國黨,
曰民黨, 曰中立黨.(下略)

이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윤중이 주목한 것은 일본이 도입한 서구의 '기기군물'이다. 그가 믿고 있던 대로 당시의 일본은 영국(정법, 해군), 독일(육군, 의학·총포, 광학), 프랑스(육군, 법률), 러시아(군장·복장)의 기기군물을 도입한 상태였다. 이러한 기기군물에 대한 관심은 어윤중뿐만 아니라 당시의 지식인들 혹은 위정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움직임의 하나가 '영선사' 파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선사는 1881년 9월 26일 김윤식(金允植)을 영선사로 하여 '무비자강책(武備自強策)'의 하나로 청나라에 파견했던 사신단이다. 김윤식의 일기인 『음청사(陰晴史)』 1881년(辛巳) 10월 25일 기사에 따르면 당시의 영선사에는 학도 25명과 공장(工匠) 13명이 포함되었을 정도로, 기기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⁵⁾

5) 金允植, 『陰晴史』 辛巳 十月 二十五日: 派員·工匠·通事·隨從 等名

領選使: 金, 從事官: 尹泰駿, 官并: 白樂倫, 譯官: 崔性學, 醫院: 柳鍾翕, 伴尙: 朴泳鈺, 尹泰駟, 學徒: 高永植, 李苾善, 朴台榮, 秦尙彥·尙溁, 高永鎰, 李熙民, 金光鍊, 李昌烈, 金台善, 趙漢根, 趙台源, 安昱相, 安浚, 李章煥, 李南秀, 李瓚, 崔圭漢, 安應龍[義州人], 朴永祚[義州人], 金聲[水柔人], 崔志亨[義州人], 金德鴻[京城人], 鄭在圭[鐵山人], 金成孫[義州人], 工匠: 金元永, 河致淡, 皮三成, 韓得俊, 金聖元, 洪萬吉, 黃貴成, 張榮煥, 宋景和[義州人], 金興龍, 崔同順, 金泰賢, 朴奎性, 別遣堂上: 卞元奎, 堂下 李根培, 通事: 鄭麟興, 李文熙, 崔志華, 隨從: 順得, 仁錫, 學甫, 善基, 萬吉, 根成, 龍成, 興福, 長孫, 在吉, 公祿, 千萬, 壽鳳, 學祚, 貞哲, 同伊, 仁石, 石伊,

이러한 흐름에서 당시의 교육 개혁론은 무비자강이나 전문 지식이 '국태민안(國泰民安)'의 초석이 되며, 이를 위해 서구·중국·일본의 문물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시기에는 서양이나 일본의 '대학교', '전문학교(기예학교)', '중학교', '소학교'와 관련된 지식이 다수 소개되었다. 그 중 조준영의 『문부성 소할 목록』에서는 '대학 법학부, 이학부, 문학부', '대학 예비문', '대학 의학부', '사범학교', '부속 소학교', '여자 사범학교', '부속 유치원', '외국어 학교-한어-조선어학 과정, 불·독·로어학 과정'의 학년별 교과목과 교수 시간 등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하였다. 그 가운데 '부속 소학교'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6) 문부성 소할 목록의 소학교 학년별 교과목

<하등>

8급	독서, 습자, 실물(實物), 수신, 패화(罫畫), 창가, 체조
7급	독서, 습자, 실물(實物), 수신, 패화(罫畫), 창가, 체조
6급	독서, 습자, 실물(實物), 산술, 수신, 패화(罫畫), 창가, 체조
5급	독서, 습자, 실물(實物), 산술, 수신, 패화(罫畫), 창가, 체조
4급	독서, 습자, 실물(實物), 산술, 수신, 패화(罫畫), 창가, 체조
3급	독서, 습자, 실물(實物), 산술, 수신, 패화(罫畫), 창가, 체조
2급	독서, 습자, 실물(實物), 산술, 수신, 패화(罫畫), 창가, 체조
1급	독서, 습자, 실물(實物), 산술, 수신, 패화(罫畫), 창가, 체조

<상등>

8급	독서, 습자, 실물(實物), 산술, 지리, 수신, 패화, 창가, 체조, 재봉
7급	독서, 습자, 실물(實物), 산술, 지리, 수신, 패화, 창가, 체조, 재봉
6급	독서, 습자, 산술, 지리, 수신, 박물관(博物), 패화, 창가, 체조, 재봉, 수의과 독서
5급	독서, 습자, 산술, 지리, 역사, 수신, 박물관(博物), 패화, 창가, 체조, 재봉, 수의과 독서
4급	독서, 습자, 산술, 지리, 역사, 수신, 박물관(博物), 패화, 창가, 체조, 재봉, 수의과 독서

漢傑 右咨文所載, 共六十九人, 此外學徒等 私帶隨從, 以備使喚者, 亦多有之.

3급	독서, 습자, 산술, 역사, 수신, 물리, 박물(博物), 패화, 창가, 체조, 재봉, 수의과 독서
2급	독서, 산술, 역사, 수신, 물리, 화학, 생리, 패화, 창가, 체조, 재봉, 수의과 독서
1급	독서, 산술, 수신, 물리, 화학, 생리, 패화, 창가, 체조, 재봉, 수의과 독서

조준영의 보고서 이후 일본의 학제에 대한 소개는 『한성순보』1884. 6. 14.[제25호]의 ‘일본재필(日本載筆)’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기사는 일본의 ‘개성학교’ 및 ‘학궁의 기기 관련 교과목’을 소개한 것으로,⁶⁾ ‘도화(圖畫)’ 등을 포함한 20개 교과를 소개하였다.⁷⁾

6) 가타기리 요시오·기무라 하지메 외 지음, 이진상 옮김(2011), 『일본 교육의 역사』(논형)에서는 일본의 개항 이후 막부에 의한 양학 교육 진흥책이 추진되었는데, 1856년 반쇼와게고요[蠻書和解御用]를 모체로 반쇼시라베쇼[蕃書調所]가 설립되고, 이 학교의 명칭이 1863년 가이세이조[開成學校]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하였다. 이 학교에 대해서는 조준영의 보고서에도 비교적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문부성 연혁’과 ‘학교 지략’에서 동경 개성소를 ‘동교’, 동경 의학교를 ‘남교’로 불렀다고 기술하였다. 『한성순보』1886.6.14.의 기사에서는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구관(舊官)’과 격물을 중심으로 하는 ‘학궁(學宮)’이 있다고 보도하고, 학궁의 기에 관련 교과목을 소개하고 있다.

7) 20개의 교과는 다음과 같다. 1) 도화(圖畫) : 幾何平面圖, 幾何立方形圖, 配景法, 書法, 工業圖法, 機械圖畫, 造家圖, 製造物機械圖, 2) 수술초업(數術初業) : 幾何學, 代數, 平面三角法, 對數, 弧三角, 幾何錐圓截面, 3) 고등수술(高等數術) : 代數, 三角法, 平面代數幾何, 立法形代數幾何積分, 微分, 積分方程式, 4) 이학(理學) : 動作理, 熱力理, 水理, 水熱理, 大氣論, 熱電氣, 幾何視學, 究理視學, 音聲學, 天文, 5) 화학(化學) : 諸力理, 元素製法, 生質抱合理, 石炭絲質, 6) 측량평준법(測量平準法) : 測量機械 并 平準器用法, 實地測量平準法, 面積計算, 連鎖測量, 角計測量, 工業起建測量, 屬水工業測量, 7) 광물학(鑛物學) : 鑛物分品, 礦物生質, 吹火筒, 製造工業要巖礦土壤論, 8) 지질학(地質學) : 地球上萬有變更力, 巖石學, 古生學, 地脈學, 9) 조가(造家) : 造家諸式, 造家用物品瓦磚, 下水管製造, 亞土和土入造石製造, 基礎布置諸式, 鐵或材木以堂屋築式, 磚瓦木材石弧門, 10) 공업경영(工業經營) : 重學, 造營, 造營物品, 經營諸式, 物品強弱, 11) 기계경영(器械經營), 12) 기계제상합(機械諸相合), 13) 기계제력(機械諸力), 14) 기계운동(機械運動), 15) 동물제력(動物諸力) : 人馬力, 筋力, 水力, 風力, 蒸氣力, 16) 조선제식(造船諸式) :

이러한 맥락에서 『한성주보』 제1호~제3호(1886.1.25./2.1./2.15.)에 실린 ‘논학정(論學政)’이나 박영효의 ‘건백서(建白書)’⁸⁾의 학제 및 교과론이 등장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두 논설에 등장하는 학교 및 학과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근대 교육 형성기의 학제 및 교과론

ㄱ. 논학정

유럽 소학교	학문(學文), 습자(習字), 가감승제(加減乘除), 지리 초보(地理初步), 세계지략(世界誌略), 물리 초보(物理初步), 본국 약사(本國史略), 각국 약사(各國史略), 비례산(比例算), 이식산(利息算), 급수산(級數算), 인의학 초보(仁義學初步), 농상공 등학 대의(農工商等學大意), 화학 대의(畫學大意)
일본 직공학교	대수학(代數學), 대수용법(代數用法), 기하학(幾何學), 삼각술(三角術), 물리학(物理學), 화학(化學), 화학(畫學), 화법 기하학(畫法幾何學)
	[화학공예] 무기화학(無機化學), 유기화학(有機化學), 분석화학(分析化學), 응용화학(應用化學), 중학(重學), 화학(畫學), 직공 경제학(職工經濟學), 부기학(簿記學), 실지 강습(實地講習), 수신학(修身學)
	[기계공예] 수학(數學), 물질 강약론(物質強弱論), 수조 공구론(手操工具論), 기교 공구론(機巧工具論), 발동기론(發動機論), 중학(重學), 화학(畫學), 제조소용 기계론(製造所用器械論), 공장용도(工場用圖), 직공 경제학(職工經濟學), 부기학(簿記學), 수신학(修身學), 실지 강습(實地講習)

ㄴ. 박영효의 건백서

(前略) 一 設小中學校 使男女六歲以上 皆就校受學事

- 一 設壯年學校 以漢文 或以諺文 譯政治 財政 內外法律 歷史 地理 及 算術 理化學 大意等書, 教官人之少壯者.[此似湖堂古事, 而其益必大也] 或徵壯年之士于八道, 以教之, 待其成業, 以科舉之法試之, 而擇用於文官.
- 一 先教人民以國史 及 國語國文事, [不教國之歷史·文章, 而但教清國之歷史·文章, 故人民以清爲本而重之, 至有不知自國之典故者, 此可謂捨本取末也]

大船艦搖動, 船艦抗拒力, 推進力, 17) 공업용제기계(工業用諸機械): 工業專課, 道路, 鐵路溝渠, 港灣, 沿槽, 橋梁複道造營, 18) 속수공업(屬水工業): 水勢, 水道, 濕地 乾又乾地灌法, 船用機械術, 河川堤防諸式, 19) 굴광(掘礦): 掘礦諸式 并 要用機械, 20) 용주(鑄鑄): 諸礦物性質, 礦物製造, 鑄鑄用機械

8) 이 건의서는 1888년 작성된 것으로 ‘건백서’로 알려져 있다. 『日本外交文書』第21卷(明治 21年)事項 10 朝鮮國 關係 雜件, 문서번호 106으로, 여기서는 국사편찬위원회(2011) 편찬, 『한국 근대사 기초 자료집 2 : 개화기의 교육』(탐구당문화원) 수록본을 참고하였다.

두 자료는 『문부성 소할 목록』의 보고서와는 달리 우리나라에 학제를 도입하고 교과를 운영해야 한다는 논리를 담은 논설로, 본격적인 근대 교육론을 개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당시의 정치·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근대 교육 형성기의 학교 및 교과 운영과 관련된 실태를 좀 더 실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2.3. 근대 교육 형성기의 학교와 교과

선행 연구 및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 근대 교육 형성기에 설립되었던 학교를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 근대 교육 형성기의 학교

연대	학교명	비고
1882	동문학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통번학교)
1883	기기창 기술전습반	기기창(병기 제작소)의 기술 전습반
1883	원산학사	사립학교
1884	부산학교	부산 지역 일본 거류민
1885	배재학당	미국 북감리회 선교부
1886	육영공원	정부
1886	경신학교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
1887	경학원	성군관 한학 교육 개편
1887	연무공원	무관 양성 목적
1890	이화학당	미국 북감리회 여선교부

이들 학교 중 ‘동문학’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 설립한 것으로, ‘통사 변통(通事變通)’을 목표로 한 학교이다. 이 학교의 명칭을 ‘동문학’으로 한 것은 1863년 중국에서 외교관과 통역관 양성을 위해 설립한 ‘동문관’을 참조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는데,⁹⁾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장정

9) 이에 대해서는 이광린(1969), 김경미(2009)를 참고할 수 있다.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장정)』(이하 장정)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¹⁰⁾ 이 장정에 따르면 동문학은 통역관 양성뿐만 아니라 ‘정치·이재의 도’를 가르침으로써 실무 관리를 양성하는 데 목표가 있었다. 다음을 살펴보자.

(9) 『장정』의 동문학 관련 사항

(前略) 一. 設同文學, 掌培植人才, 非學校不出, 非考試不尊, 宜擇聰俊子弟, 自滿十五歲者, 肄業其中先學外國語文 次及政治理財之道, 各以其性之所近力之所優 分科考取以備任 使尙有好學深思之士 無論在官去官 雖年逾既壯 亦不阻其往肆(中略)

一. 同文學宜廣備書籍講求有用之事 督率教習嚴課生徒, 以掌教一員領之主事副之再准 駁民間刊布書籍, 並開設新聞報館均歸本學節制.(下略)

기기창(機器廠)의 기술 전습반은 김윤식이 1883년 5월 서울 삼청동 북창에 기기창을 설치하면서 기술자 양성을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여기서는 외국인 기술자 4명을 초빙하여 자연과학 기초 과목과 기계학을 가르친 것으로 나타난다.¹¹⁾

원산학사(元山學舍)는 원산사(元山社)에서 설치한 사숙(私塾)으로 1885년 발행된 『춘성지(春城誌)』에 따르면, 덕원 부사 정현석, 경략사 어윤중 외 20여

10) 이 장정은 서울대 규장각 도서번호 15323·15324으로, 국사편찬위원회(2011) 31-32쪽에 수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제1조는 “一. 統理衙門之設 專以講求時務 參酌變通事 有中外古今之別機 有本末次第之宜 無欲速而見小利 無畏難而恤浮言 凡利國利民之政——謀定後 動應請分設四司以專責成 更仿照燕京設立同文學教育人才俾收實用並請”라고 하였다.

11) 이에 대해서는 박득준 지음, 북한연구자료선 15(1989), 『조선근대교육사』(한마당)에 간략한 언급이 있다. 박득준의 원작이 언제 쓰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김윤식의 『음청사(陰晴史)』 고종20년(1883) 사월조에는 “抄擇語學生, 教習於同文學校, 諫洞從兄主爲掌教, 學生爲四十餘人, 金佐郎明均, 去月自天津回, 帶來天津工匠四人, 將設機器廠, 教習製造之法, 遍看廠舍之基, 定於三清洞北倉, 中國人馬建常西還, [역문] 어학생을 선별하여 동문학교에서 교습하였는데, 간동(諫洞) 중형이 장교(掌教)가 되었으며, 학생은 40여인이었다. 좌랑 김명균(金明均)이 지난 달 텐진에서 돌아왔는데, 텐진의 공장(工匠) 4인을 대동하고, 장차 기기창(機器廠)을 설치하여 (기기) 제조법을 가르치고자 그 창사(廠舍)의 터를 둘러보아 삼청동 북창으로 정하였다. 중국인 마건상(馬建常)이 돌아갔다.”라고 하여, 전습반 강사가 텐진 공장에서 일했던 기술자였음을 밝히고 있다.

명과 상회소, 영국인 세무사 위래덕(魏來德) 등이 출원하여 설립한 학교로 알려져 있다.¹²⁾ 이종국(1991 : 111)에 따르면 이 학교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10) 원산학사의 교육과정

- ㄱ. 공통 필수 과목 : 산수(算數), 격치(格致), 기기학(機器學), 농학(農學), 양잠(養蠶), 광물학(鑛物學), 만국공법(萬國公法), 지리(地理), 법률(法律), 외국어(外國語) : 시무 해결에 긴요한 지식 습득과 실용 학문 습득.
- ㄴ. 전공 필수 과목 : 문예[경서(經書, 製述)], 무예[병서(兵書, 射擊術)] : 시무 해결에 긴요한 지식과 실용 학문 습득을 위한 기본 이론 및 실기 연마- 이종국(1991)에서는 표로 나타냈으나, 여기서는 표를 풀어서 제시함.

원산학사의 교과목은 전통적인 유학 중심의 교육에서 신지식을 중심으로 한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김경미(2009 : 81)에서 밝힌 것처럼, “유학을 근대 사회에 맞게 재해석하여 역할을 담당할 근대 지식인을 키우는 학교로 나아가갈 가능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¹³⁾

부산학교는 『한성순보』 1884. 10. 9.[제26호] 국내 사보에 실린 기사로, 이 시기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거류민 자녀를 위해 학교를 설립했음을 보여주는 기사이다.

12) 이종국(1991 : 106~118)에서는 이 학교에 관한 연구가 신용하(1980)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 『문학과 지성』 제5권 제1호(문학과 지성사)를 통해 알려졌다고 밝히고, 이 학교의 ‘설립 동인(動因)’, ‘설립 과정’,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규명한 바 있다.

13) 김경미(2009 : 81)에서는 “1882년 개화에 관한 상소를 보더라도 사숙 등에서 원산학사와 같이 새로운 서적을 읽히는 곳이 드물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원산학사와 유사한 학교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또 이러한 학교가 좀 더 성장하여 근대 학교로 발전해 가는 모습을 추적해 내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기술한 바 있는데, 이는 상당히 타당한 논리로 판단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1888년 대계 이승희(李承熙)가 저술한 『몽어유훈(蒙語遺訓)』(목판본)의 ‘일리생생 제일(一理生生 第一)’, ‘만화산수 제이(萬化散殊 第二)’, ‘명기착중 제삼(名器錯綜 第三)’, ‘삼재회일 제육장(三才會一 第六章)’ 등이 서구의 신지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근대 교육 형성기에 지방의 전통 교육 기관에서도 서구의 신지식과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11) 釜山學校

我國釜山港租居日本商民議新設一學校 令幼少男女皆就學於此云。查該港自古多有日本商民 故已設小學校 令兒童就學雖無異於日本國內 而高等學校未之設焉。是以今設該校。令教習英學漢學及日本學兼學算術 而現今生徒合計爲三十餘人云。右係釜山來信。

이 학교는 한국인을 위한 학교는 아니지만 부산 지역의 일본 거류민 학교라는 점에서 근대 교육 형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학교는 '고등학교 수준'으로 '영학, 한학, 일본학, 산술'을 기본 교과로 하였다.

배재학당은 1885년 6월 미국 북감리회 선교부에 의해 설립된 고등학교 수준의 사립학교로 “기독교인 양성과 국가의 인재를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만규(1947)에 의하면 이 학교의 교과목은 ‘한문(경서, 사기), 영어, 천문, 지리, 생리, 수학, 수공(手工), 성경’ 등이었고, 과외로 연설회나 토론회와 같은 사상 발표회, 농구·축구·테니스 등의 스포츠 등이 있었다고 한다. 수업료 및 수유등절(受由等節), 시한등절(時限等節), 행동등절(行動等節), 방학과 벌목 등절(罰目等節)을 담은 24개 조항의 규칙을 두었다.¹⁴⁾

육영공원은 1886년(고종 23년) 외국과의 교제에 필요한 어학 능력을 갖춘 관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당시 내무부의 ‘육영공원 학절목 참작서(育英公院學節目參酌書)’¹⁵⁾에 따르면 외국인 3인을 고용하여 교사로 임용하고 교육과 훈육을 전담하도록 하였으며, 좌원과 우원으로 나누어 좌원은 과거 급제자 출신 10명을 한정하여 학습하게 하고 우원은 15~20세의 재질총혜(才質聰慧)한 자를 선발하여 학습하도록 하였다.¹⁶⁾ 육영공원의 교과목은 『육영공원

14) 국사편찬위원회(2011)의 『한국근대사기초자료집2, 개화기의 교육』에서는 배재학당 규칙이 189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기술한 바 있다.

15) 『고종실록』 고종 23년(1886).8.1. 이때 고용된 외국인은 헐버트, 길모어, 벙커 3인이었다.

16) 김경미(2009 : 81~98)에서는 육영공원의 설립과 운영, 학원(學員) 분석, 교육과 과거제 등을 비교적 상세히 서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육영공원은 동문학보다 높은 지위의 관리 양성을 목표로 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한성주보』 1886.8.30.[제26호] 국내 기사의 ‘상유공록(上諭恭錄)’에 게재된 고종의 하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하교에는 “내외 아문의 당상관이나 당하관의 자서제

등록(育英公院騰錄)』의 ‘매일 학습 차례(每日學習次例)’와 ‘초학졸업후소학제조(初學卒業後所學諸條)’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매일 학습 차례’는 “1. 독서(讀書), 2. 습자(習字), 3. 학해자법(學解字法), 4. 산학(算學), 5. 사소습산법(寫所習算法), 6. 지리(地理), 7. 학문법(學文法)”으로 하며, ‘초학 졸업 후 소학 제조’는 “1. 대산법(大算法), 2. 각국 언어(各國言語), 3. 제반 학법 첩경이각자(諸般學法 捷徑易覺者), 4. 격치만물[의학, 농리, 지리, 천문, 기기](格致萬物[醫學, 農理, 地理, 天文, 機器]), 5. 각국 역사(各國歷史), 6. 정치와 각국 조약법 및 부국용병술, 금수초목(政治與各國條約法 及 富國用兵之術, 禽獸草木)”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신학교는 1886년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였던 언더우드가 배재학당과 같은 시기에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세운 학교이다. 고춘섭 편찬(1991 : 111- 147)의 『경신사(敬新史)』(경신중·고등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의 최초 명칭은 ‘언더우드 학당’이었으며 1893년 민로아 학당, 1905년에 경신학교로 교명이 바뀌었다. 초기의 언더우드 학당은 고아원처럼 운영되어 정규적인 교과목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현재 알려진 바로는 ‘국어, 한문, 영어, 산술, 지리, 과학, 음악, 성격, 체육, 번역, 교회사’ 등의 여러 분야를 가르쳤던 것으로 보인다.

경학원은 1887년 성균관의 한학 교육을 개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설치되었다. 이만규(1947)에서는 경학원이 새 교육을 표방했으나 내용은 옛 교육을 그대로 가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점에서 교과 운영과 관련된 혁신적인 것을 찾기는 어렵다.¹⁷⁾

연무공원(鍊武公院)은 1887년 12월 무관 양성을 위해 세운 학교로, 그 실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 없다. 다만 실록에서 이 학교의 설치와 관련된 기사를 찾을 수 있을 뿐이다.¹⁸⁾

질 등 족척 가운데에서 감당할 만한 사람을 가려서 추천하도록 할 것을 분부”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같은 해 9월 23일[제28호]의 ‘상유공록’에도 좌원과 우원의 충원 방법 및 고적 규제(考積規制)에 관한 하교가 실려 있다.

17) 경학원 설치에 관해서는 『고종실록』 고종24년(1887) 7월 20일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 편(2011)에도 수록되어 있다.

18) 『고종실록』 고종24년(1887) 12월 25일에는 “敎曰 有國之重務 亦不宜虛徐也. 韎韜跗注之士, 必先諳鍊, 然後乃可整部伍而嚴軍容. 向者 薦剡各人. 今將課日講習. 處

이화학당은 1890년 미국 북감리회 여선교부에서 세운 중학 과정의 여학교이다. 설립 주체가 배재학당과 같은 교파이며, 여학교라는 점에서 두 학교는 자매학교의 성격을 띤다. 교과목으로는 “성서, 영어·영문법, 산술, 언문(諺文), 창가(唱歌), 역사, 서법, 천자문, 동몽선습”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⁹⁾ 이상의 근대 교육 형성기의 각 학교와 교과 상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2) 근대 교육 형성기의 학교 및 교과목

연대	학교명	교과목
1882	동문학	외국어(장어(長語)·단어(短語) 및 문장 해독·변통하는 법), 서양 필산(筆算)
1883	원산학사	공통 필수: 산수(算數), 격치(格致), 기기학(機器學), 농학(農學), 양잠(養蠶), 광물학(鑛物學), 만국공법(萬國公法), 지리(地理), 법률(法律), 외국어(外國語) 전공 필수: 경서, 병서
1884	부산학교	영학, 한학, 일본학, 산술
1885	배재학당	한문(경서, 사기), 영어, 천문, 지리, 생리, 수학, 수공(手工), 성경
1886	육영공원	매일 학습 차례: 1. 독서(讀書), 2. 습자(習字), 3. 학해자법(學解字法), 4. 산학(算學), 5. 사소습산법(寫所習算法), 6. 지리(地理), 7. 학문법(學文法) 초학 졸업 후 소학 제조: 1. 대산법(大算法), 2. 각국 언어(各國言語), 3. 제반 학법 첩경이각자(諸般學法捷徑易覺者), 4. 격치만물[의학, 농리, 지리, 천문, 기기](格致萬物醫學, 農理, 地理, 天文, 機器), 5. 각국 역사(各國歷史), 6. 정치와 각국 조약법 및 부국용 병술, 금수초목(政治與各國條約法及富國用兵之術, 禽獸草木)
1886	경신학교 (언더우드학당)	‘국어, 한문, 영어, 산술, 지리, 과학, 음악, 성격, 체육, 번역, 교회사’ 등의 여러 분야
1887	경학원	성균관 한학 교육 개편 목적
1887	연무공원	무관 양성 목적
1890	이화학당	성서, 영어·영문법, 산술, 언문(諺文), 창가(唱歌), 역사, 서법, 천자문, 동몽선습

所稱之以鍊武公院。諸般應行規制。自內務府。商確成節目以入。”이라고 하여, 무관 양성을 목적으로 내무부에 연무공원을 설치하고 절목을 만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내용은 국사편찬위원회 편(2011)에도 수록되어 있다.

19) 정충량(1968), 『이화 80년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3. 근대 교육 형성기의 지식 유통과 교과서 문제

3.1. 일본과 중국의 교과서

근대 교육 형성기에 설립된 근대식 학교는 불과 10개 미만으로 확인된다. 이 점에서 이 시기 근대 교육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을 지향할 수 없었고, 개화의 충격을 임시방편으로 수용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개항 이후 본격적인 근대식 학제가 도입되기까지는 20년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시기 일본과 중국을 통해 들어온 서구의 신지식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나라의 교육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영향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기술할 수 있다. 하나는 이 시기 일본과 중국을 거쳐 들어온 서적이거나 교과서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며, 둘째는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교과서, 또는 한국인이 저술한 교과서 및 서적이 존재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두 과제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근대 교육 형성기의 문헌 자료에 산재하는 서적 및 교과서명을 정리하고, 10여 개 미만의 학교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교재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이 시기 일본과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의 자료에 나타나는 서적 및 교과서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료로는 조준영의 보고서, 김윤식의 『음청사』 등이 있다. 조준영의 보고서(『문부성 소할 목록』)에는 각급 학교의 교과목과 함께, 해당 교과목의 교과서명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대학 법·리·문학부’의 경우는 25개 교과목의 338종의 교과서명이 등장한다.²⁰⁾ 예를 들

20) 교과별 제시된 교과서의 수(괄호 안의 숫자)는, 일본 고대 법률(10), 일본 현행 법률(0), 영국 법률(20), 불란서 법률(0), 분석 화학(7), 응용 화학(0), 유기 화학(1), 순정 급 응용 수학(32), 물리학(24), 성학(14), 식물학(40), 동물학(8), 토목공학(16), 기계공학(11), 도학(圖學)(0), 금석학 급 지질학(11), 야금 급 채광학(4), 철학(40), 정치학(10), 이재학(理財學)(17), 화문학(和文學)(28), 한문학(14), 사학(21), 영문학(12), 불란서 급 독일어(11)로 모두 338종이다.

어 ‘영국 법률’ 교과에 사용하는 교과서명은 다음과 같다.

(13) 대학 법·리·문학부의 ‘영국 법률’ 교과에 사용하는 교과서명

- 法律緒篇：巴辣克思頓 或 弗兒武 及 合土來 著, 『英國法律註釋』
- 憲法：特利 著, 『法律原論』, 亞禡思 著, 『英國憲法』, 利伯耳 著, 『自治論』,
- 結約法：西密斯 著, 『結約法』, 勃洛克 著, 『結約法』, 蘭克特兒 著, 『結約法·摘要判決錄』, ○ 不動產法：巴辣克思頓 著, 『法律註釋』, 維兼 著, 『不動產法』, ○ 刑法：卑涉 著, 『刑法註釋』, ○ 私犯法：弗婁呀 著, 『法律註釋』, ○ 賣買法：蘭克特兒 著, 『賣買法·摘要判決錄』, ○ 衡平法：伯燕 著, 『衡平法』, 斯內兒 著, 『衡平法』,
- 證據法：斯知般 著, 『證據法』, 伯斯特 著, 『證據法』, ○ 列國交際私法：哈華兒頓 著, 『萬國私法』, ○ 列國交際公法：哈伊頓 著, 『萬國公法』, ○ 法論：豪斯丁 著, 『法論』, 墨因 著, 『古代法律』

이들 교과서 가운데 『만국공법』은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된 바 있는데, 저자명의 차자 표기를 고려하면 일본에서 사용된 책이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것은 미국 법학자 휘튼(Henry Wheaton, 惠頓, 1785~1848)의 『국제법 원리』를 미국인 선교사 윌리엄 마틴(William A.P.Martin, 丁臚良, 1827~1916)이 중국 동문관에서 한역한 것인데, 저자명 차자 표기가 일본의 교과서는 ‘합이돈(合伊頓)’인데 비해 동문관 번역본은 ‘혜돈(惠頓)’이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조준영의 보고서에는 ‘대학 예비문’과 ‘대학 의학부’, ‘사범학교’, ‘부속 소학교’, ‘여자 사범학교’, ‘외국어 학교’의 교과 세목이 들어 있는데, ‘대학 예비문’과 ‘부속 소학교’의 세목에도 몇 종의 교과서명이 보인다. 대학 예비문에는 25종의 교과서명이 등장하며,²¹⁾ ‘부속 소학교’에서는 『소학독본』 권1~권7, 『독본』 권1~권5가 등장한

21) 대학 예비문의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괄호 안의 숫자는 학년, 과목임.) 占弗兒 著, 『讀本』권3, 권4(1년, 독방), 弗羅翁 著, 『英國小文法書』(1년, 영문법), 斯維頓 著, 『萬國史畧』(1년, 해석), 路敏遜 著, 『實用算術書』(1년, 수학), 『日本外史』(1년, 화한서), 『由尼恩 讀本』권4 (2년, 독방), 伯羅恩 著, 『英國大文法書』(2년, 영문법), 盧敏遜 著, 『實用算術書』, 來土 著, 『平面幾何書』(2년, 수학), 莫耳列 著, 『自然地理書』(2년, 지리학), 斯維頓 著, 『萬國史畧』(2년, 사학), 『日本政記』(2년, 화한서), 格賢勃 著, 『英國 作文 及 修辭書』(3년, 수사), 來土 著, 『平面幾

다. 가타기리 요시오·기무라 하지메 외 지음, 이견상 옮김(2011 : 129)에서는 1873년 일본 문부성에서 처음으로 『소학독본』 권1을 편찬했다고 하였는데,²²⁾ 시기상으로 볼 때 이 보고서에 등장하는 독본과 동일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근대 교육 형성기 서구식 학제를 도입한 일본을 시찰한 결과 학제 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지식영의 상소문이나 『한성주보』의 ‘논학정’, 박영효의 ‘건백서’ 등에서 지속적으로 학제와 서적에 관한 논의가 포함되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근대 교육 형성기의 각종 학교에서는 ‘교과’와 ‘교과서’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각급 학교의 실정에 맞는 교과서를 편찬하기보다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책을 수입하여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식영의 상소문에 등장하는 『만국공법(萬國公法)』, 『조선책략(朝鮮策略)』, 『보법전기(普法戰記)』, 『박물신편(博物新編)』, 『격물입문(格物入門)』, 『격치휘편(格致彙編)』(이상 각국 인사가 지은 것) 등은 대체로 중국에서 간행된 책을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²³⁾ 특히 이 시기 지식 유통의 경로가 일본보다 중국에 치우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전통적인 대중 외교의 결과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윤식의 『음청사(陰晴史)』 1882년 4월 26일의 ‘남국 제원(南局諸院)의 회례전(回禮箋)’²⁴⁾에 등장하는 ‘서목(書目)’은 중국에서 유통되던 기기 관련 지식수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²⁵⁾ 그러나 이 ‘전’

何書』, 突土蕃太兒 著, 『小代數書』(3년, 수학), 弗利萬 著, 『萬國史』(3년, 사학), 巴苦斯列·由曼 合撰, 『生理書』(3년, 생물학), 『通鑑覽要』(3년, 화한서), 諳太耳烏土 著, 『掌中英國文學書』(4년, 영문학), 突土蕃太兒 著, 『大代數書』(4년, 수학), 斯亞士土 著, 『物理書』(4년, 물리학), 盧斯杲 著, 『化學初步』(4년, 화학), 仁可耳遜 著, 『教科用動物書』(4년, 생물학), 和塞土 著, 『小理財書』(4년, 이재학).

22) 가타기리 요시오·기무라 하지메 외 지음, 이견상 옮김(2011 : 129)에 따르면 이 교과서는 미국의 『윌슨·리더』를 번역한 것이라고 한다.

23) 이들 책이 중국을 경유한 것으로 보는 이유는 마틴의 『만국공법』과 마찬가지로, 『격물입문』, 『격치휘편』 등의 책명이 중국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24) 이 회례전은 영선사 일행이 기계 학습을 위해 남국(南局)을 방문한 뒤 그곳에 남았던 종사관 윤태준(尹泰駿 : 윤치호의 아버지)이 보내온 것이다.

25) 이 서목에 등장하는 서적류는 다음과 같다. [] 안은 책수, 운규약지(運規約

의 서목이 이 시기 우리나라에 모두 도입되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²⁶⁾

- 指)[1부 계1본(計一本)], 지학천석(地學淺釋)[1부: 계8본(計八本)], 제화약법(製火藥法)[1부: 계1본(計一本)], 금석식별(金石識別)[1부: 계6본(計六本)], 기기발인(汽機發輪)[1부: 계4본(計四本)], 화학감원(化學鑑原)[1부: 계4본(計四本)], 기기신제(汽機新制)[1부: 계2본(計二本)], 화학분원(化學分原)[1부: 계2본(計二本)], 기기필이(汽機必以)[1부: 계6본(計六本)], 어풍요술(御風要術)[1부: 계6본(計六本)], 개매요법(開煤要法)[1부: 계2본(計二本)], 항법간법(航法簡法)[1부: 계2본(計二本)], 방해신편(防海新編)[1부: 계6본(計六本)], 서예지신속각(西藝知新續刻)[1부: 계6본(計六本)], 기상현진(器象顯眞)[1부: 계3본(計三本)], 궁성개요(營城提要)[1부: 계6본(計六本)], 극로백조법(克虜伯操法)[1부: 계2본(計二本)], 영루도설(營壘圖說)[1부: 계1본(計一本)], 극로백조법(克虜伯操法)[1부: 계3본(計三本)], 측후총담(測候叢談)[1부: 계2본(計二本)], 수사조련(水師操練)[1부: 계3본(計三本)], 평원지구도(平圓地球圖)[1부: 계16장(計十六張)], 대수표(代數術)[1부: 계6본(計六本)], 서국근사소휘(西國近史巢彙)[1부: 계16본(計十六本)], 행군측회(行軍測繪)[1부: 계2본(計二本)], 열국세계정요(列國歲計政要)[1부: 계6본(計六本)], 성학(聲學)[1부: 계2본(計二本)], 삼각정리(三角整理)[1부: 계6본(計六本)], 야금록(冶金錄)[1부: 계2본(計二本)], 정광공정(井礦工程)[계2본(計二本)], 해당집요(海塘輯要)[1부: 계2본(計二本)], 격치계몽(格致啓蒙)[1부: 계4본(計四本)], 사예편년표(四裔編年表)[1부: 계4본(計四本)], 수학리(數學理)[1부: 계4본(計四本)], 격치계몽(格致啓蒙)[1부: 계4본(計四本)], 수학리(數學理)[1부: 계4본(計四本)],海道도설(海道圖說)[1부: 계10본(計十本)], 수사초정(水師草程)[1부: 계16본(計十六本)], 폭약기요(爆藥紀要)[1부: 계1본(計一本)], 동방입견서(董方立遣書)[1부: 계1본(計一本)], 전학(電學)[1부: 계6본(計六本)], 구수외록(九數外錄)[1부: 계1본(計一本)], 담천(談天)[1부: 계4본(計四本)], 구교육술(句股六術)[1부: 계1본(計一本)], 동방교섭기(東方交涉記)[1부: 계2본(計二本)], 개방표(開方表)[1부: 계1본(計一本)], 삼재기요(三才紀要)[1부: 계1본(計一本)], 대수표(對數表)[1부: 계1본(計一本)], 산법통종(算法統宗)[1부: 계4본(計四本)], 현체대수표(絃切對數表)[1부: 계1본(計一本)], 팔선간표(八線簡表)[1부: 계1본(計一本)], 항성도표(恒星圖表)[1부: 계1본(計一本)], 산학계몽(算學啓蒙)[1부: 계2본(計二本)], 팔선대수간표(八線對數簡表)[1부: 계1본(計一本)], 운선포진(輪船布陣)[1부: 계2본(計二本)].
- 26) 예를 들어 이들 교과서나 서적명을 『집옥재서적목록(集玉齋書籍目錄)』이나 『집옥재목록외서책(集玉齋目錄外書冊)』(‘집옥재’는 고종의 서재로 약 4만권의 장서를 소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적 목록과 목록 외서책은 국립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관을 1948년 2월에 등사하였다. 이 자료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열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의 서명과 대조했을 때, 유사한 서명은 많지만 동일 서명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근대 교육 형성기의 중국과

3.2. 근대 교육 형성기의 교과서

이러한 차원에서 근대 교육 형성기에 직접 사용되었던 교과서를 분석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일부 자료를 통해 이 시기 사용된 교과서의 성격을 분석해 낼 수 있다. 그 중 먼저 살펴볼 것은 지식영의 상소문에 등장하는 국내 인사가 지은 서적류이다. 이에 따르면 1880년대 초 국내 인사가 지은 책으로는 “김옥균(我國校理臣金玉均)이 편집한 『기화근사(箕和近事)』, 박영교(前承旨朴泳教)가 편찬한 『지구도경(地球圖經)』, 안중수(進士臣安宗洙)가 번역한 『농정신편(農政新編)』, 김경수(金景遂)가 지은 『공보초략(公報抄略)』” 등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원산학사의 경우 ‘학사절목’의 ‘후(後)’에 이 학교에서 사용했던 교과서명이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이들 교과서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 원산학사 ‘절목 후’의 교과서명

『영지(瀛志)』 六卷, 『연방지(聯邦志)』 二卷, 『기기도설(奇器圖說)』 二卷, 『일본외국어학(日本外國語學)』 一卷, 『법리문(法理文)』 一卷, 『대학예비문(大學豫備門)』 一卷, 『영주지략(瀛環志畧)』 十卷, 『만국공법(萬國公法)』 六卷, 『심사(心史)』 一卷, 『농정신편(農政新編)』 二卷.

이들 교과서 가운데 『만국공법』은 이 시기 일본과 중국에서도 널리 사용된 교과서였다. 또한 『법리문(法理文)』은 조준영의 보고서에 나타나듯이 일본의 대학 학제의 학부명과 동일하며, 『대학예비문(大學豫備門)』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고려할 때 원산학사에서 사용했던 교과서류는 대체로 일본의 학제나 교과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농정신편(農政新編)』은 이종국(1991)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실학 전통을 이어받은 교과서이다.

그런데 원산학사를 제외한 다른 학교의 교과서 사용 실태에 대한 자료는 거의 찾아볼 길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원산학사에서 사용했다고 하는 교과서류도 『농정신편』을 제외하면 그 실물을 확인할 길이 없다. 『농정신편』이

의의 실물이 확인되는 교과서는 육영공원 교사였던 헐버트의 『사민필지』가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근대 교육 형성기의 교과서는 개발·편찬 보다는 당시 유통되던 서적을 그대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성순보』나 『한성주보』의 일부 기사를 참고할 때, 당시 중국이나 일본을 경유한 서양 서적이 국내에 유입된 경우는 비교적 많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5) 서적 유입 실태

- ㄱ. 『한성순보』1883.10.31.[제1호] 〈社告〉 八月二十日 本局奉 聖諭特設一局自十月初一日始發刊旬報也. 然吾輩素才短識疎未能講貫一國之事務 況乎能審天下之情形 唯據各國新聞紙 與古今圖書撮要集成 稱窺一斑而已.(下略)
- ㄴ. 『한성순보』1884.8.1.[제29호] ‘歷覽英國鐵廠記略’ 格致彙編第四年第五號云 本館主人於八年前在英國歷覽製造各種鍊器之廠回華後撰述.(下略)
- ㄷ. 『한성주보』1886.2.15.[제3호] ‘新來書籍’ 德國領事卜君德樂素留心世務者也. 行捐貲由上海購求新譯西書送于外衙轉致本局者凡二百餘卷 皆天文·地理·醫藥·算數·萬國史記·各邦和約 以至鳥獸·金石·電礦·煤冶, 鎗砲, 汽機, 水陸, 兵丁, 航海, 測候, 化學, 動物及列國歲計之增減五洲時局之推遷靡不晰載 實爲我邦始有之書籍 而亦係方今利用厚生之方也. 苟有志經濟者來到本局一經繙閱則不無裨益於需世實用也.

이 자료를 통해 볼 때, 『고금도서촬요집성』은 국내에서 활용된 책으로 보이며, 『격치회편』은 중국에서 발행된 잡지로 보인다. 또한 독일 영사 부들러가 200여 권의 책을 외아문에 기증하여 박문국에서 뜻있는 지식인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음도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사고〉에 나타나는 “然吾輩素才短識疎未能講貫一國之事務 況乎能審天下之情形(우리들은 평소 재주가 없고, 지식이 소루하여 일국의 사무도 제대로 알지 못하거늘 더구나 천하의 정세를 어찌 알겠는가.)”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학제에 대한 깊은 인식과 운용 방식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계획적으로 교과서를 편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할 때 근대 교육 형성기는 학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극소수의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10여 개 미

만의 학교에서도 우리의 실정에 맞는 교과서를 개발하기보다는 당시 유통되던 중국이나 일본의 서적, 또는 일부 지식인들이 편찬한 서적을 교과서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점에서 이 시기는 학제의 필요성 인식, 소수 학교 설립, 다종의 지식 유통이라는 상황에서 근대식 학제 도입과 본격적인 교과서 개발의 전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이 연구는 근대식 학제 도입 이전의 학교 교육과 교과서 형성 과정을 연구하고자 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근대 교육 형성기의 학교 및 교과서 관련 자료 50종을 수집·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1880년대에서 갑오개혁 직전까지 10여 개의 근대식 학교가 존재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학제 도입 과정에서 1881년의 조사 시찰단에 의해 작성된 ‘문부성 소할 목록’이나 『한성순보』의 학교 관련 기사, 그리고 박영효의 건백서 등을 통해 근대 교육 형성 과정에서 학제와 학교, 교과서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 교육 형성기의 학제와 교과론은 학교 설립의 필요성과 지식 보급을 주제로 하였다. 특히 조준영의 ‘문부성 소할 목록’은 서구와 일본의 학제를 체계적으로 소개한 자료로 평가되는데,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근대식 학제 확립 과정에서 바로 적용되지는 못했다. 또한 이 시기 대략 10여 개의 근대식 학교가 설립되었으며, 각 학교마다 설립 목적에 따른 교과를 운영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근대 교육 형성기의 지식 유통 및 교과서 발행과 관련하여 일본과 중국의 영향 관계를 살피고자 하였다. 특히 ‘문부성 소할 목록’의 교과 및 교과서명과 당시 유통되었던 일부 교과서명을 대비할 때, 이 시기 국내 유통된 대부분의 교과서는 일본보다는 중국에서 발행된 교과서가 더 많이 쓰였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국공법류나 격치, 지리서 등은 중국

에서 번역된 서적이 국내에 유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근대 교육 형성기의 학교와 교과서 연구는 이 시기 유통된 기초 자료를 발굴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예를 들어 이 시기 일본과 중국에서 간행된 도서명의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한성순보』나 『한성주보』 등에 보이는 각종 서적명을 정리하는 작업 또는 고종의 도서관 역할을 했던 집옥재의 서적 목록 등과 비교하는 작업 등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주제어 : 학교 제도, 교과서, 지식 유통, 근대식 학제 도입 이전, 교과

<참고문헌>

- 고춘섭 편찬(1991), 『경신사(徽新史)』, 경신증·고등학교.
-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1983), 『한성순보』, 『한성주보』, 『한성순보·주보 번역판』, 코리아헤럴드.
- 국사편찬위원회(2011), 『한국근대사 기초 자료집2, 개화기의 교육』, 탐구당문화원.
- 김경미(2009), 『한국 근대 교육의 형성』, 혜안.
- 대한민국 문교부 국사편찬위원회(1971), 『음청사(김윤식)·종정연표(어윤중)』, 국사편찬위원회.
- 박득준(1989), 『조선근대교육사』, 한마당(이 책은 북한연구자료선 15로 초판이 언제 발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음.).
- 박봉배(1987), 『한국어교육 전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이광린(1969), 『한국개회사연구』, 일조각.
- 이만규(1947), 『조선교육사』(1991년 거름출판사 재간행본).
- 이승희(1888), 『몽어유훈』(방각본).
- 이종국(1991), 『한국의 교과서 - 근대 교과용 도서의 성립과 발전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정충량(1968), 『이화 80년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허동현(2003), 『조사시찰단관계자료집』5, 13, 국학자료원.
- 허재영 편(2013), 『근대 계몽기의 교육학 연구와 교과서』, 지식과교양.
- 가타기리 요시오·기무라 하지메 지음, 이건상 옮김(2011), 『일본 교육의 역사』, 논형.

[Abstract]

A Study of the School System and Textbooks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Modern School System(1880~1894) in Korea

Heo, Jae-young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description on the school system and textbooks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modern school system in Korea. Some people have studied this theme, but they were not focused on the textbooks and knowledge information circulation. I gathered 50 materials on the school system and textbooks for these times. I focused on MUNBUSEONG SO HAL MOKKOK(文部省所轄目錄, the report written by Jo Jun-hyeong in 1882), HANSEONGSUNBO(漢城旬報), HANSEONGJUBO(漢城週報, the newspaper published by BAKMUNKUK) and other textbooks.

I realized that the first information regarding school systems had been introduced by Jo Jun-hyeong(조준형). This report contained the Japanese school and subject systems. I found many textbooks named in this report. But these textbooks were not found until now. So I concluded this report had not affected in Korea's education. But 10 modern schools were established in this time, for example DONGMUNHAK(同文學) etc.

I found many books which were published in China, and were used in Korea at this time. I think that Korea's knowledge information circulation was affected by China at that time.

【Key words】 : the school system, textbooks, knowledge information circulation,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Modern Times, subject system.

허재영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 교육 전공 조교수

(448-7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 인문관 319호

전자우편 : hjy435@hanmail.net

이 논문은 2013년 10월 25일에 투고되었으며, 2013년 11월 30일에
심사 완료되어 12월 5일에 게재 확정되었음.